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6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소개

오늘 2부 예배시 새가족 소개와 목사님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관영민 집사/최선아 집사, 이창영 집사, 강진영 자매(청년), 류지영 자매(청년)]

• 유스 PTA 모임

오늘 11:40분 부터 친교실 끝방 CLASSROOM 에서 유스 PTA MEETING이 브로디 목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모든 유스 부모님 참석 부탁드립니다.

• 6월 월삭 예배(월 축복예배) 안내

일시: 6월 1일(월) 오전 6시 / 장소: 대예배실
* 새로운 한 달, 첫 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 월삭 예배 설교 마친 후 안수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 월삭 예배 헌금 봉투는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투 앞 면에 가정별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정성껏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GMC 한미연회

일시 : 6/1(월) ~ 4(목)
장소 : 뉴저지 베다니교회

• 교회학교 VBS (유아유치부, 초등부)

일정: 6/12(금) ~ 6/14(주일)
시간: 오전 10시 30분 ~ 오후 2시 30분
주제: Rahab's Faith / "Faith That Saves" - 여호수아 2:11
등록: 교회 홈페이지 또는 담당 사역자

• 성경적 부모(자녀) 교육 세미나

일시 : 6월 21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 대예배실
강사 : 박춘일 목사 (한사랑교회 청소년부 담당 목사)
참석대상 : 모든 성도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올 여름 교회학교 VBS

6월 12일 (금) ~ 14일 (주일)

오전 10:30 - 오후 2:30

주제: '라합의 믿음' (여호수아 2:11)



지난주 헌금 통계

일반헌금 \$9,790.50	십일조: \$4,965.00	감 사: \$670.00
	주 일: \$1,352.00	기 타: \$2,803.50
지정헌금 \$6,615.00	목장: \$535.00	아이티: \$6,050.00 건축: \$3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5권 22호
2026년 5월 31일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 P. the Poor in Spirit*
- O. Oneness in Lord's Hand*
- E. Encouragement in Christ*
-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성령강림후 첫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428장(통488)
내 영혼에 햇 빛 비치니

기도 Prayer / 전정환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서로 사랑하자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성광고

-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 성경봉독 Scripture 렘(Jer) 29:11..... 다같이
-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 It is peace, not disaster

▲ 파송찬송 Closing Hymn/ 오 신실하신 주(하나님 한 번 도 나를)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부(10:30am)

인도자 Presider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주 예수 내 맘에,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기도 Prayer / 황영순 권사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서로 사랑하자 -

2026년 5월/6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5월 31일	1부	베뢰아	담당자	전정환권사	베뢰아 목장
	2부			황영순권사	
다음주 6월 7일	1부	물댄동산	담당자	최혜영권사	열매목장
	2부			유영재장로	

설교요약

오늘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눈물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해 가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구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별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7-8절에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음이란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희망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평안은 문제가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포로 된 백성들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눈물도, 두려움도, 절망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형편과 아픔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참된 평안입니다. →

<설교 요약>

때로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눈물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하시고 절망의 자리에도 함께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살아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날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나눔 질문 >

- 1) 나는 지금 어떤 “바벨론”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 가정, 건강, 관계, 경제적인 문제 등)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는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어떤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 형편과 눈물, 기도 제목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어떤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거나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4)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나는 최근 내 입술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평과 염려의 말이 많았는지, 믿음과 격려와 축복의 말이 많았는지 돌아보며, 이번 한 주간 내가 실천하고 싶은 “믿음의 말 한 가지” 를 나누어 봅시다.
- 5)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 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금주 애찬 섬김

	금주 (5월 31일)		다음주 (6월 7일)
	백건수, 조윤미성도		장인진집사
	범사감사		범사감사
	베뢰아목장		열매목장